



호남신문



1946년 4월 창간 | 재발행 2007년 9월 16일 제 2788호

ihonam@naver.com

2019년 9월 30일 (음력 9월 2일) 월요일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분야 해외투자유치 성과 거둬

미국 LA서 투자유치 설명회…한인 리더·경제인 150여명 참석

1천만불 투자 양해각서 체결…마린 리조트 건설 추진 계획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국 LA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1천만불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7일 미국 LA 현지에서 완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에 투자 의향이 높은 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투자설명회에는 LA 한인상공회의소, 한인회, LA호남향우회 등

한인사회에서 중주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인 리더들과 경제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완도군에서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해외 농수산물 판로 개척 수출상담회에 동행한 관내 기업인 12명도 참석했다.

투자유치 설명회에 직접 나선 신우철 완도군수는 '2019 완도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유치 계획'에 대한 정부정책, 완도의 자랑, 주요

투자대상지 소개, 투자대상 사업, 투자유지방향 등을 직접 설명하여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완도군과 1천만불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하버드부동산(조양래 회장)은 완도군에 마린 리조트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LA한인상공회의소와는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실현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는 업무협약도 맺어 향후 성과가 더욱 기대가

된다.

완도군은 2017년부터 2030까지 공공 및 민자유치를 통해 해양 치유센터, 공공병원, 해양관리자원 센터, 해양치유공원, 마리나 시설 등 공공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공공사업 유치와 함께 민간병원, 호텔, 해양건강 리조트, 마린헬스 레지던스, 상업시설 등 민간인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완도군은 천혜의 이름다운 자연경관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여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은 물론 군민의 미래 100년 먹거리 해결에 나섰다"며 "타국에서 은퇴를 고민하는 한인들에게는 완도로서 가능



완도군과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박성수)은 미국 LA 투자유치 설명회장에서 해양치유산업 해외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 해양치유산업이 크나큰 매력으로 다가가는 의미있는 투자 기회"라고 역설했다.

원도=김광수 기자



한국노총 경북-전남본부 교류 20년 '끈끈한 우정' 과시

동서지역 노사한마음 행사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는 지난 27일 장성 백양관광호텔에서 영호남 노사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지역 노사한마음행사를 개최했다.

양 지역 노사관계 발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올해로 20회를 맞는데 동서지역 노사가 먼저 마음을 더 놓고 정치적으로 꼬인 해묵은 감정의 골을 허물자는 취지로 매년 양 지역을 오가면서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노사한마음행사에서는 동서 노사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지역과 계층을 떠나 진정한 노동자세상을 구현하는데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신원 전남본부의장은 대회사에서 "동서지역 노사한마음 행사를 통해 노사 상호간의 우의를 돋우고 양 지역 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간격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해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오늘 행사가 직급의 어려운 경제 현실로 침체되어가는 산업현장에 힐기를 불

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고 밝혔다.

권오탁 경북본부의장은 답사에서 "양 지역 노사는 민족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국가발전을 주도해 왔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가 다른 길을 택하면서 동서지역간의 간접의 골이 깊어진 일면이 없지 않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동서지역 노사가 먼저 마음을 터놓고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담양에 국내 유일 '개구리생태공원' 개장

살아있는 개구리 관찰 생태관·사육실 등 운영

담양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구리를 주제로 한 생태공원이 문을 열었다.

담양군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환경체험교육장 기능을 할 개구리생태공원과 에코센터를 개관한다고 29일 밝혔다.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인근에 자리잡은 개구리생태공원은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살아있는 개구리를 관찰할 수 있는 온실생태관과 전시관, 사육실



학동리 개구리생태공원 내부

등으로 조성했다.

생태공원 건물 외부는 담양의 상징인 대나무 제품을 형상화하

고 내부 소재도 최대한 대나무 소재를 많이 활용했다.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조성해 '생태도시 담양'의 느낌을 담아냈다.

에코센터는 총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환경에 관한 기획·상설전시실, 교육실, 무인카페, 어린이 도서관 등을 갖췄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개구리생태공원과 에코센터는 생태관광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앞으로 올바른 체험 교육 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점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고흥군,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업무협약 체결

부주의 안전사고 예방